



일본의 사회구조 변화와 생명보험산업

김진억 수석담당역

일본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며, 장기적으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15년에 소비자니즈의 사망위험보장에서 장수위험보장으로 전환과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회사들이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이 성장하였음. 그러나 그동안 보험이익의 중요한 원천인 위험률차 손익의 장기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으로는 사업비절감을 통한 시업비차 손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■ 일본은 인구감소, 노령인구비율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생명보험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동인구비율이 감소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¹⁾

- 일본의 노동인구비율은 생명보험 시장 규모(생존/사망 보유계약)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, 동 비율은 1997년 최고치(53.5%)를 보였고 생명보험 시장 규모도 FY1996 1,496조 엔으로 최고치에 달하였으나 FY2015 동 비율이 51.0%로 하락, 보유계약금액도 40% 감소한 859조 엔으로 축소됨
 - 노동인구비율은 2030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보유계약금액도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동 비율은 2038년까지 50%대로 하락하면서 보유계약금액도 FY1998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도 축소될 것으로 보임
- 지난 10년간 감소하던 보유계약금액은 FY2015에 전년대비 약 2조 엔 증가하였는데 이는 평균 보유계약금액은 감소하였으나 계약 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함
 - 특히 계약 건수 증가는 의료보험,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수요에 의해 증가한 데 기인하며, 동시에 사망보장상품 판매 부진에 따라 평균 보유계약금액은 감소함

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니즈는 사망위험보장에서 장수위험보장으로 전환되고 있음

1) Japan's Insurance Market(2017), The Toa Reinsurance Company, "Japan's Individual Life Insurance Industry Confronts Major Changes in the Structure of Society"

- 일본생명보험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FY2000 생명보험상품 구매자 중 60%는 사망보장이 주요 구매이유였으나 동 비율은 2006년에 의료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보험상품을 구매한다는 비율과 역전되었으며,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환자 부담이 증가된 데 기인함²⁾
 - 한편 2015년 조사에서 저축수단으로 보험을 구매하는 보험계약자의 수는 2012년 6.7%에서 1.8%로 상당히 감소함
 - 저축과 투자목적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감소하였는데, 이는 예정이율이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된 데 기인함
-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장기적인 축소 추세 속에 FY2015의 보유계약금액 증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명보험 니즈의 다각화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위험보다 장수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에 특화된 상품이 성장하고 있음
 -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증가하면서 보험수요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1인 가구와 핵가족 가구의 증가에 기인함
 - 그러나 가구 수 증가에 의한 보험수요 증가는 가구 수의 증가 추세가 2020년에 5,310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임
 - 또한 여성 보험계약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, 신계약 기준으로 FY2010 이후 여성 보험계약자 수가 남성 보험계약자 수보다 많아졌음
 - 이는 가구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며 싱글맘, 만혼 그리고 여성근로자 증가 등에 따라 가구 수가 증가함
- 일본 생명보험산업은 인구구조,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명보험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왔으며, 장기적으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, 2015년에 사망위험보장에서 장수위험보장으로 소비자니즈의 전환과 가구 수 증가를 반영하여 보험회사들이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생명보험 시장이 성장하였음
- 그러나 보험이익의 중요한 원천인 위험률차 손익의 장기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전략적으로는 사업비절감을 통한 사업비차 손익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**kiri**

2) 2002년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험 부담은 10%에서 30%로 증가되고 고령층에 대한 고정건강보험비용시스템이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보험구매의 주된 이유가 사망보장에서 의료 및 병원비보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